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복음 안에서의 파트너십 Partnership in the Gospel

#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 (ALCOE V) 개막

###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국로잔위원회(의장:이중윤 목사)와 서울교회 부설 기관인 KIMCHI의 주관으로 서울교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로잔대회가 『복음 안에서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아시아 20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게 된다.

참여하는 각국의 열기는 대단하여 이번 대회 참석자 입국 1호는 라오스에서 오시는 분들로 5명이 지난 23일(금) 오전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 완료하였고 24일(토)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팔라우 대표단이 도착했으며 나머지 참석자 대부분은 26일(월) 당일에 도착예정이다. 현재 참석자들은 로잔 준비위원회와 전화 통화와 e-mail을 통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로잔위원회측 역시 영접을 관리하는 의전 팀이 매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특별 가동하고 있다.

한편으로 본 대회는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젊은 지도자들의 발

굴과 육성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신학생도 함께 초청한다. 대회 기간중인 27일~29일 3일간은 참석자들과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게 되며 찬양대가 서게 된다.

로잔위원회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로 민박(home stay)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참석하는 각국과 기도 결연된 선교회와 전도회는 더욱 뜨거운 기도로 함께 하여 이번 대회가 복음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 있다. 또한 내일 이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대회개회를 위한 제반 행사가 시작됨으로 각 호실을 청소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됨에 따라 오늘 교회 각 부서는 교회학교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면 사용한 방을 깨끗히 청소하고 정돈하여 내일 손님맞이와 대회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한편 ALCOE V의 Time Table는 다음과 같다.

Time	26, Mon	27, Tue	28, Wed	29, Thu
5:30~6:15		Bible Study & Prayer 1	Bible Study & Prayer 2	Bible Study & Prayer 3
7:00~8:00		Breakfast		
8:00~8:30		Break		
8:30~9:30		Session 1		Session 6
9:30~9:45	Arrival & Registration	Tea Break		
9:45~10:45		Session 2	Session 4	Session 7
10:45~11:00		Tea Break		
11:00~12:00		Session 3	Session 5	Session 8
12:00~13:00		Lunch		
13:00~17:00			Visitation 1	Visitation 2
18:00~19:00	Reception & Welcome Dinner	Dinner	Dinner	Banquet with Church Leaders
19:00~20:30	Opening Service	Evening Service	Evening Service	Closing Service (Holy Communion)

### 9월 다락방 모임을 앞둔 3교구 · 6교구 교구 모임

8월 31일(토) 3교구(교구장 정병무 장로), 6교구(교구장 노송성 장로)는 오는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을 앞두고 8월 한달 간 교구식구들의 신앙과 건강을 점검하고 바자회 준비를 토의하는 교구 모임을 갖는다. 3교구는 5시 만나홀에서, 6교구는 5시 노송성 장로택에서 각각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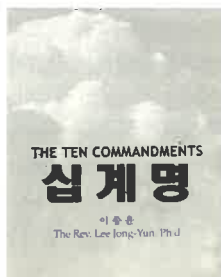
### 제2회 새가족부 Home Coming Day 열린다

새가족부에서는 2001년 6월30일 이후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초청하여 교회 일꾼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제2회 Home Coming Day를 9월7일(토) 오후3시 만나 홀에서 갖는다.

### 신간안내

—십계명 발간—

이중윤 목사가 올해 초 10주 동안 주일예배 시간에 설교한 10계명 강해를 정리한 것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가격은 8,500원이고 1층 서점에서 판매한다.



## 2002년 하반기 교사계속교육 · 교사양성반 안내

생명을 가르치는 가장 귀한 직분을 받은 교사들이 더욱 새로운 신앙과 각오로 교사의 직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는 교사계속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세를 배우게 되는 교사양성반 하반기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사계속교육과 교사양성반은 9월8일(주) 함께 개강하여 11월10일(주) 까지 매주일 계속되며 우리교회 교역자들과 전문성을 가진 성도들이 각 주제 별 강사로 서게 된다. 특히 하반기 교사계속교육은 지난번 순서와 같이 부장과 부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닌 평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된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며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 † 교사계속교육 †

기간: 9월 8일(주일) ~ 11월 10일(주일)  
시간: 오후 3:10 ~ 4:30  
대상: 교회학교 교사  
장소: 602호

일자	강의제목	강사
9.8	교회학교의 조직 및 역할	한상은 목사
9.15	교사의 학생상담	이용식 목사
9.22	공과공부 지도방법	이태훈 전도사
9.29	교회학교에서의 전도방법	이규정 목사
10.6	교회력에 따른 절기교육	조대영 전도사
10.13	학생의 신앙발달 단계	한상은 목사
10.20	교회학교 교사의 기도	오정식 목사
10.27	교회학교와 찬양	외부강사
11.3	교회학교 행정업무	송인권 집사
11.10	멀티미디어 활용교육	조철기 집사

#### † 교사양성반 †

기간: 9월 8일(주일) ~ 11월 10일(주일)  
시간: 오후 3:10 ~ 4:30  
대상: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세례교인  
장소: 603호

일자	강의제목	강사
9.8	교회란 무엇인가?	이상득 목사
9.15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규정 목사
9.22	성경이란 무엇인가?	김운호 목사
9.29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한상은 목사
10.6	교사는 누구인가?	신미숙 목사
10.13	교사와 기도	지예영 전도사
10.20	반복이란 무엇인가?	윤영국 목사
10.27	교수-학습지도란 무엇인가?	이태훈 전도사
11.3	예배란 무엇인가?	오정식 목사
11.10	교사의 학생상담	이용식 목사

이시아서 강해

#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 (이사야 66장 19 - 14절)



이중운 목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표식을 6 가지로 말씀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표식은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3).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사람이 만든 기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은 교회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 17:17). 교회의 두 번째 표식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교회의 세 번째 표식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은 떠난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 교회의 네 번째 표식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상에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교인과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다섯 번째 표식은 연합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과업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여섯 번째 표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모든 것을 이루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불같이 일어날 때 신자들이 받을 복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개인의 가정과 생업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육신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크게 왕성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왕성할 때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 1. 기뻐함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기뻐합니다. '기쁨이 4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의 강세용법으로 큰 환희를 말합니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에 신자들도 함께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므로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우리 삶에 가장 최우선에 두며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며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벤전 12:2)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가 옵니다. 위로는 문제가 해결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희망이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뻐하게 하려 함이라"(벤전 4:13).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의 이쁨을 함께 할 때 교회가 영광을 받는 시간에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며 그가 심판주로 앉아 계시실 때 우리는 배심원으로 그 옆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교회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 2. 위로와 만족을 얻음

"너희가 젖을 빼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닦고 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11절).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면 아기는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젖을 빨듯이 교회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며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벤전 12:2)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는 옵니다.

위로는 문제가 해결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희망이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해 주는 것이며 만족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같 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12절).

교회의 품에서 젖을 빨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신자는 평강을 강같이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창일하는 강수처럼 앗시리아군의 압박을 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되고 영광의 강처럼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11).

하나님의 교회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양육하는 도리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의 품은 항상 그리운 법입니다. 어머니의 품안에 안긴 자식은 풍성한 젖을 빨고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양을 품에 안듯 우리를 안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과 위로와 기쁨과 참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위대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13절).

신자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 교회를 찾고 아픔이 있을 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강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3. 신령한 생명력을 얻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14절).

포로 생활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뼈까지 쇠하였습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된 그들의 뼈는 봄철에 잘 피어오르는 연한 풀같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마르고 시든 뼈가 힘과 활력을 얻어 골수가 윤택하게 됩니다(잠 8:8).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생명의 힘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애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니 그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필박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 품안에 있는 갓난아기가 힘과 생명과 평안에 차있듯이 예루살렘에는 새 생명이 넘치고 번영과 영광에 충일하며 신령한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 4.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14절). 여호와와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공홍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원수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공홍의 손이며 창조와 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개인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나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여호와의 손이 항상 함께 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신령한 말씀의 젖을 날마다 배불리 먹으므로 위로와 만족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은 골수가 윤택하여 힘과 평안을 누리며 생명력을 얻게 되며 여호와의 손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므로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므로 이 복을 받고 누리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니만 선교지에서...

### 검은 대륙의 찬양

#### 문명속 선교사(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스트레스로 가득 찬 유럽인의 얼굴들을 보곤, 두고 온 검은 형제들을 떠올리는 것이다.

하루 한끼 먹는 것도,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자라서 코끼리 발 같이 된 큰 발들로 적도의 태양아래서 몇 킬로미터씩 걷는 것도, 늘 기아와 빈곤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불평하지 않으며, 그토록 유쾌하게 웃으며, 나누며 살아가는 아프리카 형제들을 유럽인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 좋은 환경과 풍요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진정한 복을 놓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본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마 12장15절>

몇 천 원 짜리 약도 쓰지 못해 열병으로 죽어 가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아프리카 형제들이야말로 오히려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며 또 누리려는 것이 아닐까? 처음 아프리카로 향할 때의 두려움과, 기후와 문화 충격으로 고통스러웠던 신참 선교사 첫해를 기억해볼 때, 이제는 아프리카 체질이 되어 아프리카 문화권 밖에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 주님이 많이 바뀌놓으신 것 같다.

지난해 중앙아프리카 사역에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철학이 십자가인 철학교수에게 찬양사역을 주셔서, 찬양이 가득한 가운데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은혜 없이 구원의 감각 없이 그저 "노래" 마냥 찬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가장 좋은 찬양은 귀에 듣기 좋은 찬양이 아니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며, 마음에 기도가 가득 차게 된다.

찬양하는 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듣는 자의 마음에 기도가 우러나겠는가?" 라고 가르치며, 기도하며 연습하고 열었던 찬양집회... 신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눈이 적셔지고, 어린이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지며, 새 노래들이 길에서 노는 아이들의 입에 가득하고, 가정예배를 잃었던 한 교수의 가정에서 불려지는 것을 창 너머로 봤을 때, 주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주께 영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57:9>



### 몽골에서 온 편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선교를 지향하는 서울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서울 교회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시어 아멘 교회, 갈보리 교회, 알방을기 지역 선교를 지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훈련되고 준비된 귀한 전문인들과 젊은이들을 보내주시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웃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아멘 교회와 갈보리 교회 전 교인 수련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개척 예정지에 의료, 미용 봉사를 하여 지역 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한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건축 \$2,000.- 갈보리 \$500)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선교사 자녀학교' 이전에 필요한 현금(\$1,000)을 해 주신 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면 선교현장에서 더욱 힘을 얻어 일하겠으며, 보다 좋은 결과들을 서울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 8. 19.

몽골 현지 선교회

아멘 교회 담임 양재철 선교사 드림



###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신학세미나



오는 9월 2일부터 22학기를 개강하게 되는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의 목회자세미나는 교과를 초월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계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의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한국교계의 목회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역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제는 우리 한국교계의 성공한 목회 관련 세미나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목회자세미나에서는 Text와 Context 두 가지 주제 모두가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즉, 깊이 있는 성경 강해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영적인 충전과 말씀의 공급을 받고,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목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공급 받게 됩니다.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학문적이면서도 실제로 현장에

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신학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학문적 지교성(Academic Excellence)」과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는 이종윤 목사의 세미나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같이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이미 각종 설문 조사등을 통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공부의 내용과 양이 현장목회에 있어서 그 실용성과 절대량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목회자 자신의 갱신에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목회 현장과 신학교육과의 불연속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신학교육내용은 바뀌어야 한다는 일선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난 1992년 3월 개강 이래 1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교회갱신의 기치아래 말씀(Text)과 상황(Context)을 연구,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매 학기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답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영성', '현대교회와 인성회복', '현대사회와 교회', '복음과 문화', '복음과 상황', '교회와 국가', '경건과 절제',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 '새 하늘 새 땅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정보화

시대의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21세기 교회와 전도의 새 패러다임', '21세기 목회현장의 변화와 목회신학', '정보화, 테크노 시대의 목회전망' 등 한국교회의 갱신에 필요한 시의 적절한 주제들은 신학교와 목회 현장의 괴리감을 줄이고, 일선 목회자의 영성 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신학교육으로 평가되며 목회에 커다란 유익이 되고 있음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에 10년이 넘도록 매년 연인원 만 명 정도가 수강하고 계속 새로운 수강자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결국 현장 목회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성공프로그램의 벤치마킹(Benchmarking)이 아닌 계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의 체득이며 바로 이 같은 국내 목회자들의 요구에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교단과 교과를 초월하여 한국교회 전체에 매년 새롭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영성과 목회에 도전하여 복음에 이바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는 9월 2일부터 10주간 동안 "신앙과 애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만나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함께 나누고 연구하게 될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시환(편집부)

# 장로 수련회에서

## 이관규 장로(10교구)



각 부서의 성경학교, 농촌전도, 몽골 단기선교까지 교회 의 큰 잔치들을 무사히 마치고 난 뒤에 홀가분한 맘으로 지친 육신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삼척으로 떠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들뜬 기분도 잠깐 고속도로에 진입한지 얼마 안 되어 목사님의 근엄하신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피서를 위해 휴양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용감한 병사가 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처럼 새로운 각오로 수련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버스 안에서의 첫 번째 강의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의 본을 받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일꾼, 섬기는 종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오정식 목사님 가정을 찾아서



1969년 10월 28일, 경북 안동의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오정식 목사님. 건국대 철학과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1년 2월에 목사인수를 받으신 오 목사님이 서울교회에서 받은 첫인상은 우선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질서있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전에 섬기던 교회와는 많은 것이 다른데 특별히 목회자신학세미나, 김치세미나, 주부대학, 경로대학 등의 대외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부임전후 목사님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지셨다는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에 머물기 때문에 아침시간이 아주 풍성해졌고 이 시간을 값지게 활용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셨다고. 서울교회와 함께 하실 비전과 각오를 목사님은 한마디로 전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의 존재이유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 멸망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하신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열심을 내어 서울교회와 이 전도의 사명, 비전을 나누고, 이러한 영혼구원에 사력을 다하는 목사가 되길 소망하시는 목사님의 목회철학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 예배와 전도에 목숨을 거는 것,

니다. 이어 몽골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장로님들의 간단한 선교보고를 통해 우리 서울교회의 기도의 힘이 멀리 몽골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은혜로운 교회 좋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서울교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는 자부심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23사단은 군 선교의 산실이며 군 복음화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첫날밤을 보내고 둘째 날로 이어진 목사님의 특강은 교회 안에서 장로의 바른 위치를 새삼 느끼고 확인하며 당회원과 성도가 일치할 때 교회가 부흥성장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언'이라는 시간을 통해 알아본 교회의 발전을 위한 장로님들의 의견발표와 가족소개는 그분들의 진솔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즐겁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에서의 일출 그리고 부대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식사는 실로 우리 서울 교회 온 성도들이 받아야 할 대접을 당회원들이 대신 받는 줄 믿고 누린 육과 영이 살찌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장로수련회를 계기로 모든 당회원들은 목사님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말 그대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즐겨 암송하시는 성경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인데, 조모님께서 신대원 시험을 보러 갈 때 작은 메모지에 적어주신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메모지를 성경에 붙여두고 그 성경으로 시험을 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힘을 더해 주신다고. 애찬송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떤 광곽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변화된다는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이다.

현재 목사님이 관계하시는 부서는 3,4교구와 장년 4,5부, 순례자, 멀티미디어봉사단, 출판국이다. 교구 식구들에게는 먼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사람, 무릎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구 식구들이 되시기를 당부하셨다. 장년 4,5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들을 보여주시기를,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감동을 주신 순례자, 멀티미디어봉사단, 출판국 여러분에게는 지금과 같이 기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여러분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먼저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목사님 가족은 건국대학교 철학과 동기로 만나 9년 동안의 열애 끝에 결혼한 사모님과 사모님을 닮은 유진이(6), 목사님을 닮은 유경이(5), 네 식구시다.

중심으로 더욱 더 겸손한 자리에서 교회를 돌보며 세계를 교구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23사단 등대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고전 16:18) 말씀처럼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이번 수련회를 위해 협조해 주신 등대교회 목사님, 사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크고 넓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회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기도 드립니다.



##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ALCOE V 참가국과 각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 · 각 선교 · 전도회 연결 사항(V)



### 미얀마

참석인원 : 4명  
연결현황 : 빌립 남선교회  
구(舊) 버마로 버마족이 63.1%로 지배부족임. 전국민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고 정령숭배의 영향 또한 강하다. 풍부한 지하자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여건으로 국가경제수준을 빈국으로 만들었다. 개혁교회의 성장률 6%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기도제목>

- 1. 군사통치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 2. 정치적 이유로 고립되었다가 다시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
- 3. 미전도 종족을 위해
- 4. 현지어 번역 성경 발음을 위해

### 동정

■ 이종윤목사는 8월26일(월)ALCOE V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금주의 식사제공 : 김태욱 집사 · 이미리 집사  
아버지(이종윤 목사)생신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 (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아시아 로잔대회 성공을 위하여
- 2. 선교사들의 건강과 영력을 위하여
-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